



# 헌혈 Q&A



## 헌혈하면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?

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정기준 시행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헌혈 1회당 4시간, 년 간 전혈 5회, 성분헌혈 24회 이내로 자원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.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(<http://www.vms.or.kr/>)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봉사시간 인증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## 헌혈을 하면 건강에 지장이 없나요?

우리 몸의 혈액량은 체중의 7~8%로 충분한 양의 혈액을 가지고 있고 전체 혈액량의 15%는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.

## 헌혈의 종류와 가능한 나이를 알려주세요.

헌혈은 전혈과 성분헌혈로 구분되며, 성분헌혈은 혈장, 혈소판, 혈소판혈장으로 구분됩니다. 헌혈 가능 기준 나이는 전혈 320ml는 만 16세~70세 미만, 400ml는 만 17세~70세 미만, 성분헌혈은 만 17세~70세 미만인 분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만 65세 이상인 분은 만 60~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

## 헌혈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다시 헌혈할 수 있나요?

전혈헌혈은 마지막 헌혈일로부터 2개월 후에, 성분헌혈은 마지막 헌혈일로부터 2주 후부터 헌혈이 가능합니다.

## 채혈한 혈액은 어떻게 쓰여 지나요?

혈액사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익사업입니다.

채혈된 혈액은 혈액원으로 입고된 후 일련의 혈액제제과정을 거쳐 국가에서 고시된 혈액수가에 의해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공급하게 되며, 혈액수가 안에는 채혈에 사용되는 의료품, 검사비, 헌혈자 관리비, 기념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## 헌혈하면 어떠한 검사를 해주나요?

혈액형검사(ABO, Rh), 매독항체검사(STS), ABS(비예기항체검사), anti-HIV(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항체 검사), anti-HCV(C형간염 항체검사), 말라리아 항체검사, HBsAg(B형간염 항원검사), HTLV(인체 T-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항체검사), ALT(간기능검사), Total Protein(총단백검사), NAT-HIV-1(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핵산증폭검사), NAT-HCV(C형간염 바이러스 핵산증폭검사), NAT-HBV(B형간염 바이러스 핵산증폭검사)

##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?

헌혈증서는 '혈액관리법 시행령'에 따라 금전, 재산상의 대가없이 양도가 가능하나,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이 불가능하오니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